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面

社說
物價對策委員會答申案

一

昨秋로부터 今春에 亘하야 世界的物價騰貴와 國內諸物價의 飛躍的膨脹에 呼應하야 急激한騰勢를 告하거던 物價는 更히 大衆生活에 脅威를 與하는데 끄치지안코 輸出貿易의 不振 爲替水準의動搖 이어서는 通貨인풀레 懸念까지도 誘致할 憂慮가 업다고할수업고 마지막에는 國防計劃까지도 蹉跌케할念慮가잇다고하야 政府는 臨時物價對策委員會를 設置하고 各其小委員會를 任命하야 鐵、石炭、動力及生活必需品等에 關한 物價對策을 考究하기로된것은 이미周知의事實인바 이各小委員會에서는 오랜동안 이에關한 調査、研究를 거듭한結果 그答申案의 成案을 終了하엿스므로 去十二日 政府에서는 總會를 開하고 이答申案을 審議可決하엿다。

二

이答申案의 要旨를 一瞥하건대 鐵에 關해서는 (一)鐵鋼價騰의原因을 究明한結果 昨年末以來의 騰貴는 世界的需要激增과 이에件하는 船舶運賃의昂騰의 影響도 不少하나 國內需要激增에件하는 中間配給機關의 思惑取引이 主因이엇다고 斷定하고 이應急策으로는 需給均衡을 圖하는同時에 思惑을 取締하기爲하야、鐵鋼輸入、消費合理化、代用品充用勵行、一定供給量의 需要者에의 配定等을 行함이 必要하다고보아 鐵鋼統制委員會를 設置하고 强力的인 自治統制를 行함이 可할것이라고하고 (二)戰時鐵鋼對策은 이應急策施行을 中軸으로하야 今後發生될 諸問題에 對應하야 適宜한 方策을 講究하라고 하엿스며 다음 動力은 京濱、名古屋、阪神三大工業地帶를 中心으로考究한結果 前記地帶의 現行動力料率은大概 妥當하다고 結論하고 다만中小工業에對한 動力料는아직 考慮할 餘地가잇다고하엿스며 特殊工業과 地方的으로 自家發電을研究함이 可하다고하엿다。또石炭에 關해서는 石炭의 現在價格이 他重要商品市價에 比하야 그騰貴率이 반드시 高하지안코 一般物價指數의 昂騰보담도 低率인 現狀이므로 現在로는 炭價調節보담은 그需給調整을 圖하야써 適正한 炭價維持와 恒久的 對策을 講究할에잇다고하엿다。

三

그다음 生活必需品에 關해서는(一)物資消費調整에關한 具體的方策樹立 (二)生產供給에 適應키爲한 規制 (三)各種組合團體等의 價格協定을 適正케할 方策講究 (四)重要商品의 價格公定制의 考究 (五)物資需給調整에 關해 必要한 權限을 政府에 附與할것 (六)輸入抑制策實施에 當해 物價에對한 影響을 考慮할것 (七)配給組織改善의 具體策樹立 (八)通貨膨脹에 依한 物價騰貴回避等을 列擧하고 끄트로 白米販賣에 對해서도 暴利取締를 考慮하라고하엿다。以上의 答申案의 要旨를 一括하야 考察할때에 첫재는 生產力及 供給力增大가 物價抑制의 根本이므로 이를爲한 具體的方策이 第一로 必要하고、다음、消費調整乃至合理化와 配給改善의具體的方策樹立、思惑의取締、重要商品價格公定制考慮、組合團體의價格協定을 適正케할方策等을 講究하라는것等인데 一言而蔽之하면 政府에 特別한 權限을 賦與하야 各方面의 統制를 强化함으로써 物價抑制의 目的을 達成할수잇슬것이라고 함을 示唆한것이라고 할수잇다。

四

그러면 이答申案은 [illegible] 目的을 [illegible] 問題인바 이보담도 먼저 이答申案이 斷界의權威를 網羅하야 長久한時日동안 調査研究한것이므로 勿論 이結論을 輕視할것은 못되나 生產力、供給力不足이 物價昂騰의 根本이며、思惑取引이 第二의原因인것等은 最初부터 自明한것으로서、何等 새로운、特殊한 原因이 究明된것이 업슬뿐외라 甚하게 말하자면 一般이 知悉하는 程度의 原因과 그에對한 具體策樹立의 必要를 論述羅列하엿슬뿐이오 그 對策으로서의 具體的方策은 別로 明示된것이 [illegible] 今回의答申은 거의 失敗한 考慮를할것이 [illegible] 가아닌가하는 [illegible] 지게한다。物價騰貴의 原因을 究明하는것이 그對策을 樹立하는데 가장必要한 第一의要件임은 勿論이나 常識的程度의 原因을羅列한다음 그對策은 一日統制로써 答申한것은、物價抑制를爲한 消費節約이나 思惑取締도 그成績을 [illegible] 가아닌가 생각된다 [illegible] 그러므로 이答申으로써 곳어떠한 效果를어들수 잇스리라고는 期待할수가업고、다만 이것을土臺로하야 政府가 今後如何한方策을 具體化하느냐하는데 期待를 가질수밧게업는데 前述한바와가티 時局에伴하는 情勢變化를 기피考慮치안흐면 안될것을 생각하면 物價對策은 結局 새로운立場에서 再研究再檢討할必要가 잇지안흘가한다。

國府遷都決定
重慶을臨時首都로
外交財政內政三部는漢口
大本營은南京에存置

【上海十六日發同盟至急報】十六日終日에亘하야 國民政府最高首腦部가 協議한結果、國民政府는 軍事關係를 除하고 其他의 行政機關을 모두 南京으로부터 奧地로 移轉하기로 決定하엿다

【上海十六日發至急報同盟】國民政府는 行政機關의 南京退却을 決定하고 國民政府主席 林森도 重慶으로 移轉하기로되여 重慶이 國民政府의 臨時首都로 되엿다

【上海十六日發同盟至急報】國民政府의 遷都는 左와如히 詳細決定되엿다

一、主席 林森을 爲始하야 司法、立法、行政、考試、監察五院은 重慶으로
一、外交、財政、內政의 三部는 漢口로
一、交通部는 長沙로
一、實業、教育、鐵道의 三部는 重慶으로
一、大本營及 軍事機關만은 南京에 殘留함

山東大包圍完成
戰術의最高調發揮

【平原十六日發同盟】晩秋의 山東北部地區를 舞臺로展開되는我包圍網은 北支戰線에서 일즉이 보지못한 大規模的이오 또放膽極한것으로 戰術의 廣大함과그 기교에잇서는 日本戰術의 極致를 最高調로 發揮한것이오 用兵運用의 典型이라고 稱할수잇다 韓復榘軍의 過半數는 이包圍網으로 隨處에서 擊破되여 左往右往하며 드를곳이업는 慘憺한 敗退를 反覆하고잇다

山東前進部隊 重大政點에逢着

【平原十六日發同盟】大黃河北岸에 展開되고잇는 皇軍의 分進合擊作戰은 着着 進捗되고잇는데 이大包圍網中에잇서 風前燈火로된 敵은 禹城方面에서는第七十四師代身에 韓復榘가 鐵軍이라고 자랑한 第二十師 孫桐萱軍이다 第八十一師는 臨邑 第二十九師를 救援하고저 向하는 途中 我長野、沼田兩部隊及 桑田〇〇隊의 急襲에 遭遇되여 完全히 그手中에 陷入하야 四分五裂로되여 四萬餘의 韓復榘前進部隊는 殲滅이나 投降이나의二途中 어느便을 選擇하지아니치 못할 岐點에 逢着하게되엿다

臺灣米穀總數量

【臺北電話同盟】總督府殖產局發表＝十一月一日 臺灣米穀現在高는 總數量五十九萬八千八百九十一石으로 其內譯은 左와如하다

蓬萊	二〇九、八三四
在來粉	三四六、九九三
丸糯	一七、五三九
其他	二四、三七五
內地米	一五〇
合計	五九八、八九一

統帥行政相關事項만
軍部大臣이仲介
大本營과政府의關係

【東京電話同盟】新軍令에依하야 近日中에設置되게된 大本營은純然한統帥機關에 基하야 設置되는것이오 政治的意味는 가지지안케될것인데 右大本營條令과 內閣官制를如何히 調整하여갈지자 못在緊되나 內閣總理大臣、陸海軍大臣을 主로하는連絡係로하야 圓滑한運用을期하게되엿다」即最初大本營條令과는 全然別個로 某種의 連絡機關을 設置하는것도 考究되엿스나 右는大本營에政治的色彩를가게할念慮가잇다는 理由로 中止케되고 今回는統帥部와行政部와協議的關係에잇서 統帥와行政과의 相關事項만에關하야 陸海軍大臣의仲介로 統帥部職員과 行政部大臣과의間에 時時로協議를 行할方法을 取하야 所謂御前會議에는 特旨에依하야 近衛首相만이 出席하기로될豫定이다 따러서陸海軍大臣은 職員을引率하고 大本營에 參畫하며 一方首相은 特旨에依하야 大本營의御前會議에 出席하게되여 兩者가 統帥와行政과의 相關事項에對하야 먼저協議를遂하고 政府는이에基하야 統帥權에關係잇는 諸般事項決定을 迅速히處理할方針이다

首相常時參畫

【東京電話同盟】今回設置된 大本營은 純然한 統帥權에基한新軍令에依하야 設置되는데 이와함께 右大本營과行政部인 內閣과의連絡을 圓滑케함은 戰果의達成 戰局의收拾等見地로부터 必要不可缺한것이다 이를하기爲하야 軍部와政府間에서 이點에對하야 特히研究를進行하고잇는데 今次大本營에서 首相은如上한見地로부터 常時大本營에 參畫하야 陸海軍大臣과함께 內閣과의 連絡에當하기로되엿다 그러고 右連絡에對하야는 十六日閣議席上 某閣僚로부터 質問이잇서 軍部大臣으로부터 目下研究中이란言明을 答辯하엿는데 右와如히 首相이 常時大本營에 參畫하는外 大本營幕僚는 必要에應하야 關係閣僚와 協議를行할方法을 取할터로 所謂御前會議는 特旨에依하야 近衛首相만出席할것으로拜察된다

禹城驛、晏城攻略코
黃河北岸齊河占領
濟南을指呼間에眺望

【平原十六日發同盟】加藤部隊의 竹田中尉는 겨우 部下十六名을 引率하고 禹城西方을 大迂回하야 十五日午後二時 마침내 禹城驛에 突入하야 이를 占領하엿다

【平原十六日發同盟】福榮部隊의 一部는 晏城攻略에 繼續하야 東南進하야 十五日夕刻 黃河左岸의齊河를 占領하고 感激의 日章旗를揭揚하고 바야흐로 東省城濟南을 指呼間에 바라보게되엿다

【石家莊十六日發同盟】津浦線을 濟南으로向하야 南下한我〇〇部隊는 十五日午後四時 晏城을 完全히占領하엿다 黃河는 指呼에 臨한 我將兵의 意氣는 衝天할듯하야 潰走하는 敵을쪼처 黃河에 壓迫中이다

津浦線의敵四散

【天津十六日發同盟】津浦線前線의 皇軍部隊의 猛擊에恐怖되여 黃河大鐵橋二個所를爆破한 敵은 算을亂하야 黃河南岸으로退却하는中이다

平湖一角占據
嘉興敵退却開始

【〇〇에서同盟特派員十六日發】十六日 午前十一時 新銳上轟部隊의 一部는 平湖（乍浦西北方十五키로）의 東에 突入을 加하야 激戰後 市街의 東方一角을 占據하엿다

【〇〇에서十六日同盟特派員發】十六日 午前七時지나 嘉興方面의 敵一部隊는 南方으로 向하야 退却을 開始한 模樣이다

【〇〇十六日發同盟】平湖의 敵은 目下大混亂을 呈하야 續續杭州로退却을開始하엿는데 部落民도 敗退兵에 雜되여 杭州로向하고잇다 이때문에 市內는收拾할수업는狀態에잇다

一、南京大校場飛行場(屬山、陽夫領)을爆擊
一、蘇州常熟間進行中의 敗兵을 爆擊
一、常熟茶叶村(常熟北方)附近爆擊
一、蘇州로부터 望亭으로 潰走하는 敵兵二百을銃擊
一、吳江北方運河를 南下하는 敵兵五百의銃擊
一、蘇州 無錫 吳江北方의 諸部落을 爆擊
一、蘇州 無錫 常熟間의 道路를 疾走하는 多數한 軍用自動車

空軍爆擊에 蹂躪된支那各地

【上海十六日發同盟】我海의荒鷲 鮮海軍航空隊는 連日山東、江蘇의要衝을 掩擊하야 敵에 殲滅的打擊을 與하고 制空權을 잡고 縱橫無盡으로 活動을 繼續하고잇는데 그 戰果는 實로〇〇에 達하야 我海軍航空部隊의 全力을 다한爆擊은 昨十五日만하여도 左와如하다

一、津浦線沿線
가、大汶江鐵橋
나、長淸、濟陽間黃河上渡河中의 敵軍隊를 爆破한 黃山鎭及 泰安北方의列車爆擊
一、上海方面
汽船을爆擊 常熟以西의 通路를 進行中인 敵兵을 銃擊 通安橋鎭의 橋梁及 望亭附近(모두 蘇州無錫間)을 爆擊 蘇州市街北部의 附近橋梁을 爆破하다

福山要塞占領

中支前線部隊 蘇州附近에到達

【上海十六日發同盟】十四日白茆口에 上陸한 有力한 兵團의 一部〇〇隊는 十六日午後一時揚子江岸의 有數한 要衝福山要塞를 占領하엿다

【崑山十六日發同盟】中新涇鎭으로부터 敗退한敵을 追擊한〇〇部隊는 昨十五日 前進을 決行하야 崑山城을經由하야 一擧로突進하야 休息할사이도업시 蘇州河를 西으로西으로 追擊하야 十五日夜半지나서 蘇州를 距한 約六里地點에 肉迫하야 西部蘇州의城壁을 [illegible] 하다

敗殘兵을擊滅

【崑山에서十六日發同盟】崑山占領後〇〇部隊는 蘇州로進擊하는中인데 敵은崑山西側에 數線에亘한 機統陣地를 構築하고 頑强한 抵抗을 繼續함으로 我軍은十五日 夜襲戰에依하야 이를擊破하고 同夜十一時半頃부터 岡本部隊는 崑山蘇州 街道方面으로부터 同街道의 南側地區로부터 各其進擊을 續行하야 到處에서 敗殘兵을 擊滅하면서 西方으로 進擊하는中이다

英製飛機材料 香港에陸揚

【東京電話同盟】確實한情報에依하면 英國그로스타飛行機會社製作의戰鬪機四、五十臺分材料가十日前 英國船으로부터 香港에 陸揚되엿는데 그中六、七臺分은 啓德飛行場倉庫에 殘餘는 他飛行場倉庫에 納入되여 모두 廣東方面으로 輸送될것으로 觀測된다

日露戰爭當時 大本營條令廢棄

【東京電話同盟】支那事變의 進展에따러 軍令에依하야 大本營을設置하기로되엿는데 明治三十六年公布된 勅令에依한 戰時大本營條令은 十六日 閣議에서 陸海軍大臣의 要求에 基하야 이를廢棄하기로 決定하엿다

公電到着後 再次態度聲明

【東京電話同盟】十五日午後九國條約會議 全體會議는 支那事變에對한 [illegible] 宣言을 可決하엿는데 右宣言에對하야 帝國政府는 公電이入手한後 그內容을 充分히檢討하고 我方의 公定한 態度를 [illegible] 하기로되엿다 [illegible]

一、日支의 直接的交涉은 解決을不可能케함
一、會議參加國은 如何한共同的行動을 取할가에對하야 考慮할것

[illegible] 伊國의 反對投票에이어 瑞典、諾威、丁抹三國은 棄權하엿고 條約加盟國인 日本도參加하지안엇슴으로 [illegible]

滿蘇間諸懸案
兩當局間圓滿解決

【新京十六日發同盟】滿洲國과蘇聯間의 諸懸案中乾岔子島事件이 發生한때 擊沈된蘇聯砲艇 [illegible] 及 昨年九月 蘇聯側에서 抑留中인 北滿金鑛會社의 機艇興安號其他 船舶에關한 諸問題를 黑龍江結氷前에 解決하기爲하야 前般來 哈爾濱에서 蘇滿兩當局이 折衝中이엿든바 今回 左와如히 圓滿한 解決을지엿다

一、蘇聯은 興安號를 滿洲國에 返還하되 黑龍江結氷이切迫하엿슴으로 明春結氷이풀리기까지 기다리여 卽時引渡할 言質約함
二、乾岔子島事件當時 擊沈된 蘇聯砲艇의 引揚作業은 十月二十二日開始、同廿九日作業을 終了하고 現場을撤退할것
三、蘇聯은 五月二十日及七月十七日 黑河下流岸에서 抑留한 滿洲國側帆船二隻을 이미滿洲國側에 返還하엿다
四、滿洲國은 五月二十四日黑河에서 抑留한 蘇聯側機艇을 十月二十五日 蘇聯側에返還하엿다
五、蘇聯이 昨年六月 興凱湖에서抑留한 滿洲國帆船及그積荷를 近日中에 [illegible] 에서 滿洲國側에 引渡할것

新大本營設置
十八日官報로公布

【東京電話同盟】新大本營設置에 對하야 陸海軍當局이協議한結果 十六日成案을어덧스므로 杉山陸相、米內海相은 十七日宮中의御形便을 奉伺하고 參內 上奏御裁可를 仰하기로되엿는데 十八日에는 官報로써 公布될터이다 大本營設置에 依하야 參謀本部、軍令部、陸海軍兩當局에서 日程其他를 協議決定한後 伏見軍令部總長宮殿下께서 御參內 大本營設置에關한 御允裁를仰할 順序인데 設置期日은 十八、九日頃이 되리라고 觀測된다

南京을占領乎 크리스마스前에

【香港十五日發同盟】허스트系인 유나이테드通信社 上海特派員니카봐一氏는 十五日上海方面의戰況을 左와如히 傳하엿다 日本側은 過去二十四時間에 七百個의爆彈 燒夷彈을 蘇州에 投下하엿다 支那特有의 樂園이라稱하고 千五百年의歷史와 文化를 자랑하든 蘇州는 바야흐로 焦土로 化하려한다 日本軍은 連日에 亘하야 蘇州支那人에게 猛烈한爆擊을 [illegible] 하엿스나 아직도約二十萬이나머잇고 其生命은 念慮되여잇다 日本軍의 蘇州攻擊은 南京攻略의 必然的行動이다。外國武官은 支那軍이 日本軍의 攻擊을防止할수잇는 防禦線은 江陰과 無錫間의 一戰이잇슬뿐이라고 觀測한다 現在支那軍은 同地點에 晝夜兼行으로 防禦陣地를構築하고잇다 日本軍의 南京占領은 크리스마스까지더가지안흘것이다

常熟占領戰

【常熟에서十六日同盟特派員發】揚子江에上陸한 新銳部隊는十四日夕刻부터 벌서常熟의一角을占領하엿는데 十四、十五兩日間敵의 抵抗은 相當히頑强하여 我軍은 이兩日의 戰鬪에서 戰死傷者〇〇名을내이고 支那側은 遺棄死體八百五十 捕虜六百에達하엿다 또 이戰鬪에서 我軍은敵野砲四門을爲始하야 小行李機密書類等多數를鹵獲하엿다

何基豐戰死

【平原十六日發同盟】지난十一日 大名攻略戰에서 敵의一個師는거이全滅되엿는데 師團長何基豐도 戰死한것이 判明되엿다 何基豐은 馮治安의直系요 北支事變勃發當時는 旅長으로 宛平縣一帶의 部隊를指揮하야 我軍과事端을 이르킨元凶이다

本社參觀

◆慶南咸陽郡安義公立普通學校生 一〇二名 宮國定德 趙三鳳兩氏引率下本社見學

夕刊後市況 十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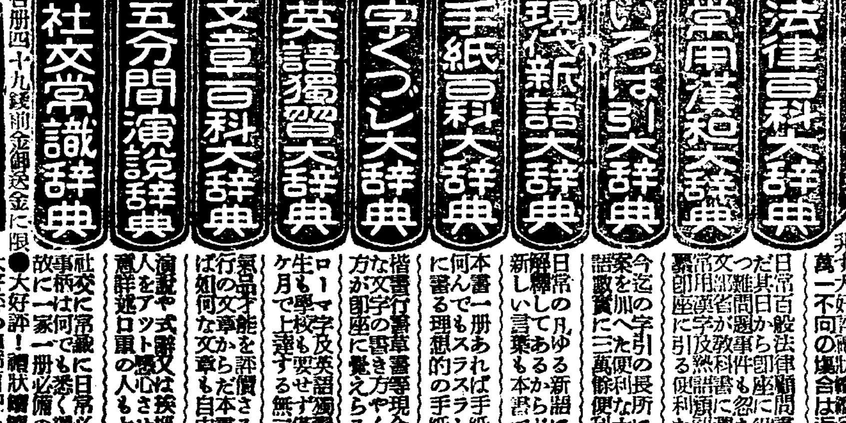
◆朝取短期◆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棉花(後引)◆ 當限 六〇六五 先限 五一九五
◆橫濱生糸(後引)◆ 當限 七四一〇〇 先限 七一七〇〇
◆大阪人絹(後引)◆ 當限 六一九〇 先限 六六一〇
◆福井人絹(後引)◆ 當限 六一九〇 先限 六五八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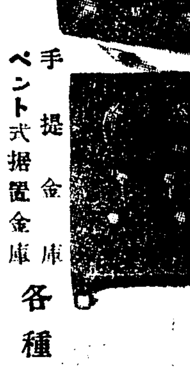
危險한耳鼻疾患을 根治식힐患者諸氏는大木耳鼻藥으로 治療하면 家庭에서도 곳根治됩니다

치워오는찻겨울날에는 귀병과 코병이 몹시 중하게되는시절입니다
朝鮮은 大陸性氣候와 로질관계로 특히耳鼻疾患의患者가 많으니 하로바삐 위험한중환이되시기전에 가장的確한효과가잇다고 한영을밧고잇는 大木耳鼻藥(오ー기이비약)으로 곧치료하여주시사 근치의깁붐을 어더주시기바랍니다
本劑는 유명한獨逸의 醫藥大家 포리추웨르博士의處方하신藥으로써 가정에서 손쉽게 간단히 치료하야 근치되는 약입니다
귀젓 耳道炎 귀가아푼데 耳疲 耳內濕疹 耳가다루 귀밥 急性 慢性鼓膜炎 蓄膿症에 鼻漏 鼻가다루에특효
定價 廿錢 卅錢 壹圓
全道有名한藥店에잇슴

大木耳鼻藥 (대목이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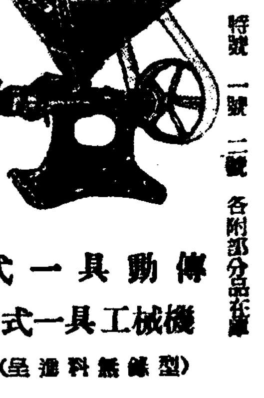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辭典拾冊合本タダの一圓卅錢 各冊分は四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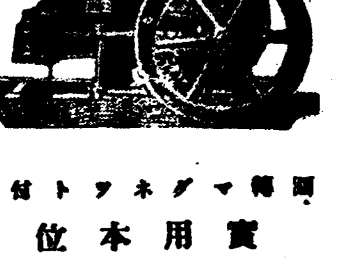
左の大評判の辭典一冊定價一圓十册合本定價十圓のところ [illegible]
一冊宛の分賣は各冊四十九錢前金御送金に限る●大好評！
特別景品 代進呈 模範日記
大阪東淀川局區內西町 振替大阪五一六二二番 合資會社 國民書院日報係

金庫의仕入時期

手提金庫 各種 ペント式据置金庫 鋼鐵家具類 國防ポンプ 消火器各種
東京市下谷區稻荷町四番地 東京金庫 茅野金庫製作所
電話下谷二四八九番 振替東京一五七三〇八番
型錄送呈

◎日本ミシン製造株式會社製
代理店特約店募集 ブラザーミシン

型錄無料進呈
總代理店 朝鮮大邱府八雲町 八谷工場營業所
長電話一〇四七番 振京城二貳參七番 受信略號タイキウ、キカイハチヤ
製造直卸
製造元ノ十ケ年保證書添付

八谷式精米機

特大號 特號 一號 二號 各附部分品在庫
傳動具一式 機械工具一式 (型錄無料進呈)

最も完全なハルチヤ發動機

製造直卸
實用本位 國産マグネット付
クボタ型瀨發動機
三馬力半 五馬力 七馬力 十馬力 [illegible]
太田支局 電話八四九番

共同自習四年間 漫畫天才四男妹

漫畫集、漫畫新聞을數百部共同製作 兒童教育에新驚異

네남매가 그린 제본된 만화집

조선에 자유화교육(自由畫教育)이 보급되지 십오륙년에 장족의 발전을 보히고잇스나 상화(想畫) 만화(漫畫)에 잇서서는 거의 등의하는 사람도 업서보이는 이때에 천재적 소질을 가진 소년 만화가 사남매가 출현한 근래에드문 쾌뉴-쓰가잇다 그들은 부내 내수정(內需町)사십오번지에사는 리창순(李昌順)씨의 장남 (東星商業學校) 일년생 리동완(李東完)(十五)군 차남 청운보교(淸雲普校)사년생 동수(東守)(十二)군 장녀 청운보교 이년생 옥희(玉姬)(九)양 차녀 정희(正姬)(七)양의 사남매로 그들 사남매는 한방에서 제상을 맛대노코 공부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본밧지못할만치 특수한 형제애(兄弟愛)의 천진한 세게를 이루어 본래부터 그림에 소재를 가지고잇는 그들은 의조케도 어린 형제끼리 공동사만화구락부(共同社漫畫俱樂部)라는 재롱스러운 명목까지 붓처 부모도 선생님도 아지못하는 사히에 형은 아우를 지도하고 아우는 형의뜻을바더 그들이 질기는 만화 세게에서 몰르 쓸타지 못할 회묵한 분위기를 이루어 순진한 동심을 통하야 봉만한 사회를보는 명쾌한 필치(筆致)으로 그들이 발견한 창작의 삼매경(三昧境)에서 꿈속가티 경진하고 잇섯스니 이어린남매들의 만화를 보면 그모다가 정밀한 필찰아래 표현된것으로 부내각서사에서 판매하는 만화집에 지지안하리만치 그 상(想)이 풍부하며 누구나 일견하야 경탄할만치 아름다운 동심(童心)에 비치인대로 표현된것으로 어린 남매들의 자치적 공동연구(共同硏究)은 비단 어린이들로서 만화(漫畫)란 특수창작에 류의(留意)하고 경진햇다는 한가지 사실만이 놀라울뿐아니라 롤과 연상내외 함동들로 그 자습(自習)과 계통을 가진 자치적 공동학습제도를 만드러 지도교육으로서도 볼수업는 성적을 엇고잇는데 일반교육가와 교육학자들에게까지 엄숙한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잇다

(사진은 우로부터 정희 동수 동완 옥희의 사남매와 그들의작품)

그들남매가 이와가티 공동일치하야 만화를 학습하는경로를 드러보면 네남매의 제일만형되는 동완군이 총지도격이되어 만화제작 예정표를 먼저 고안한후 그제목에따러 거리로 동산으로 학교로 각각허터저나가 제각금 차저서 자료를수집하야 집으로 도라와서 각각마음대로 만화제작을하는데 이가티 그리는 만화는 네형제가 분담으로 하야『만화대회』(漫畫大會)『만화의동무』(漫畫之友)『만화세게』(漫畫世界)『우리들의만화』(我等之漫畫)『만화제』(漫畫祭)『만화일본』(漫畫日本)『만화만세』(漫畫萬歲)『만화행렬』(漫畫行列)『만화진군』(漫畫進軍)『대소만화』(大笑漫畫)등 어린이들로서 측처리생각못할 당당한제목을붙처 각각그린만화를 수집하야 정밀한 수법으로 제본(製本)을하고 표지의의장을 정성스리가추어 공동사만화구락부발행(共同社漫畫俱樂部發行)이라는 명목을 부처 일집 어진차례대로내여 네형제가 서로돌려가면서 비평을하고 감상을하야 남모르는 유쾌(愉快)를늣기고잇는것이다 이뿐아니라 그들은 매일매일 내밀(內密)로 쓰기는하나 정밀하게 체재(體裁)를가춘 신문지형의만화 신문을발행하야 돌려가면서보고

여덟살먹은 옥희가그린만화

서로돗첫스니 이것도 동완이가 발행하는것은 유명신문 옥희가 명목을붙처 표제를가추고 내용은 만화를체운후 매일매일발행하엿스니 어느날 신문『사설』(社說)이라는 표제아래 공몽보면

‖공부할때에는‖

공부할때에는 다른것은 생각말고 자기가 지금하고잇는것만생각하야 열심공부합시다 그리고 다른사람이 공부할때에는 자기는 방해되지안케 적은소리로말하야 학습장에 글자를 쓸때에는 깨끗하게씁시다

이가튼 글을실려 회람해보고서로경고하야 학습을 해왓다고한다 이가티하야모혼만화집이 동완군의『해와별』동수군의『돈군의꿋님』옥희양의『꼿때랑』정희양의『그림말』등의 대표작만화집외에 수백여책을 제본하엿고 이밧게 만화신문도 수천매를만들어 보는사람으로하여곰 어린이들입으로 뭇수업슬만큼 놀라도록한동시에 동심에비초인 복잡한 사회실정을 어린이나라에서 완전히 소화하야생활화식힌점은 실로교육가로서다시금 음미(吟味)해볼만한자료사실이되엿다

이가티 네형제가 이가튼규묘로 학습을 시작하기는 동완군이 보통학교 사학년 시대부터 하야 지금까지 온것으로 부모들이큰리해가 업섯스나 학용품비용에서 얼마식 더러서 그림재료를 충당하엿다고한다

기자가 네남매를 그들공부방으로차즈니 오늘도네남매가책상에부터안저 저마금 만화를그리면서

기자가『너이들 형제는화목하고 공부를 잘하니 신문에내여주마』하엿슬때 겸손하는 동완군은 천연한표정을하고잇슬때에 옥희양은『우리도 만화신문이 잇답니다』하고 방실우서다 그들의아버지 리창순씨는 룡산공작주식회사(龍山工作株式會社) 공장수입으로 매일사남매의 교육방면은 저녁에나 보는형편이나 원만한 가정에 평화한 생활을하고잇다고한다

父親李昌順氏談

차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러케까지 열심히 만화를 그리는줄을 이제야선생의말슴을듯고 아럿습니다、만화교육이 그다지 아동세게에 큰힘이되는것이라면 더욱 소질을 발휘식히도록 원조할가합니다。

淸雲公普四年擔任 金柄運先生談

별로 특별지도도 안햇습니다만 그애의묘사가 대담하고 장래가 유망하다고보아 장래 지도에 일층노력하겟습니다。

淸雲公普二年擔任 羅貴瑛先生談

아름다운 자연과정물(靜物)의사생(寫生)을주로 담화를 지도합니다 계적은 조흔편입니다만 만화를 지도한적은업는데요……

崇實三校廢校 申請書를遂返却

道學務課態度確定

【平壤】 평양부내 숭실전문학교(崇專)숭실학교(崇中)숭의녀학교(崇義)등세학교의 경영자 밋순회로부터 지난일일 평양부 학무계에 세학교의 폐교신청서를제출하야 부학무계를경유 평남도학무과에 이서류가 회부되엿다함은 기보한바잇거니와 폐교후 재학생의처치문제와 재산처분문제에대한 하등의설명이 첨부되지안엇스므로 폐교수속서류로서 불충분하고 미비한점이 만타하야 도학무당국관계자들사이에서는 장시일동안 검토를햇스나 이서류를 총독부에보낼수 업다는것으로 의견의일치를보아 신청인중에 세학교의 폐교신청서류는 제출자에게 부학무계를 경유하야 반각하기로되엿다는것을 무미(武尾)학무과장이 십오일 발표햇다

이때문에 세학교폐교수속서류는 부학무계를 통하여 이삼일중에 밋순회관계자에게 반환될터인데 이서류를받는 선교회측으로서는 폐교후 생도처리나 재산처분에대하여 어더한 성의잇는 설명을붓치어 재차 당국에 제출할지 매우주목을 끌게한다

銃後의愛國獻金

二百五十萬圓遂突破

지나(支那)사변발발이후 황군 작전은 북지로남지로 혁혁히진전하야 수도남경(南京)은 대동요를이르키고잇는데 국내 총후의적성은 전후지전에 정비례하야더욱더욱 치져하야 가는중이다

선엄월십일까지 조선군사령부 애국부에 헌납된애국헌금은 실로이백오십팔만칠천원에 달하얏는데 그상세한것은다음과갓다

防空器材費 二百四十一萬五千七百五十三圓七十七錢 恤兵慰問金 十六萬七百十圓九十五錢 其他 一萬五百四十七圓三十七錢 合計 二百五十八萬七千十一圓九錢

匿名獻金한 兩處女溫情

십사일오후한시쯤 룡산륙군병원(龍山陸軍病院)에 전상병사를 정성굿 위문하고도라오는도중 수부(受付)에 봉서를노흐며『이것을 환자에게주십시요』하면서일홈도 말하지안코 나가버린 어엽븐십팔구세되는처녀와 녀학생으로 가리보이는 자매두사람이 잇섯다 게원인 대학동의(?)가 개봉하야보속 다음과가튼위문의편지와 돈십삼원이 드러잇섯다 이아름다운온정에 감격한 직원은 곳그뒤를쫏차갓스나 그때는 벌서그들의자최가 보히지안헛다 편지에는 일본국민으로태여난것을 감사하고 북지(北支) 중지(中支) 남지(南支)에활약하는 황군의수고를생각하야 엇지해서라도 나라를위하야 활동을하려고 누이동생과 서로상의하야 부친으로부터 어든잔돈을절약하야 정의를위하야 성전에참가한후 명예의전상자들을 위문하는 열렬한 성의가기록되여잇섯다 고마렵다 이미담은 부근주민들의 눈물겨운 이야기거리가되여가지고잇다

不具者男便이 己妻를賣喫

魔窟一步前親母가救出

실혀하는 남편에게 도리혀끄임바더 서울유곽에팔니난날 사랑하는딸의 위급을알고차저온 어머니의손에 마굴한거름아페서 구조된 미인소부가잇다—

경북례천군 룡궁면읍부리(龍宮面邑部里) 리만석(李萬石)(?)의 셋재딸영애(永愛)(?)는 가튼동리사는 중매인의말만밋고 작년봄 경기도룡인군내사면 송오리(龍仁郡內四面松䴏里)최기룡(崔基龍)(?)에게 시집을갓스나 그집이극빈한데다 남편조차불구자로 남편에대한 증오의일념은 날이갈사록 더하야갈뿐으로 이것을안 남편은 십사일 그를서울로 끄여내여 청진정(淸進町)이백칠십사번지 호남려관(湖南旅館)에서 최후의부부생활을하면서 십륙일에 팔십오원을받고 서린정(瑞麟町)백오십구번지 소개업자 윤성기(尹成琦)에게 파라가지고 종적을 감추어버렷다 이리하야 이소부는‖마굴행‖의 운명을겁머지고 울고잇슬때 그기맥을안 어머니김씨(金氏)(?)가 고향으로부터 차저와서 사건을 종로서에 고발하얏슴으로 위기일발의 경지는 버서낫스나 남편이 이극란하야 경찰에서도 그처치에 바더 먹고 도방간혹잡 갈흥질 두동을일코잇다

放蕩子의改悛키를 죽엄으로써忠告

七旬老母가投海自殺

【釜山】 지난십오일오전네시경부산부내초량정(草梁町)에사는 주류판매업김용한(金用漢)의처 신순이(辛順伊)(?)가 초량역(草梁驛) 압 해안에서 투신자살을 하얏다는 급보에 부산수상경찰서에서는 형사가 공의를다리고 현장에가서 사체를 검증한후 그원인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로파는 자기 장남 김모(金某)(?)가 오래동안 첩을 다리고 살림을 돌보지 안하서 애를쓰고잇던중 수월전에 그첩과 갈리엿스나 그후또 주색에 방랑하므로 수차 만류를하얏스나 듯지안흐므로 지난십사일밤에 업다름을하얏는데 여러가지로 비관한남어지 차라리 늙은몸이 죽어서 방탕한 자식을 각성케하겟다는 비참한 결심을한후 그와가티 투신자살을 한것이라고한다

布施市에火災

朝鮮人三名死傷

【大阪】 지난십사일오전팔시사십분경에 포시시북사초(布施市北蛇草)에잇는 세루로이드가공업자 이동선(伊東善大)의 이층에서 불이 이러나 그집과이웃 용접공리종철(鎔接工李鍾哲)세루로이드공리태복(李太福)하부라시공신태은(申泰殷)의 네집은 전소하고 겨우 동구시삼십분에진화하엿다는데 화재의원인은 이동의집에서 일하는중에 직공김봉이가 담배불을 잘못버려서대화재를 이르온듯한데 이화재에 이동의내연의처 가와사와나가(川澤なか)(?)는 피난중 그집처마미테서 소사하고 직공김봉이(金奉伊)(?) 홍한용(洪漢龍)(?) 양인은 대화상을당하야 곳병원에입원 응급치료를바덧스나 여시 김봉이도 사망하엿다고한다

北阿峴町強盜 新端緖發覺?

西大門署員猛活動

기보=십오일 오후한시쯤 부내북아현정(北阿峴町) 일번지의일호 수하(手賀)씨방에서 이러난 강도사건에대하야 소관서대문서에서는 강본(岡本)사법주임이하 사법계형사대일동이 맹수사중 십륙일밤 아홉시쯤 무슨단서를 어덧는지 아연긴장하야 활동에 박차를거러 수사방침을 달리하야 모방면으로 새로히수사를개시하게되여 범인의체포까지에는 시간문제인듯한모양이라한다

雇女紹介한다고 金錢을脅迫橫領

【平壤】 평양부내서성리(西城里) 강국주(康國柱)(?)란자는 가튼동리 김리점(金利漸)의처녀 복녀(福女)(?)를 [illegible] 현숙(李賢淑)의집에 전차(前借) 삼백원에 소개해준다고 다리고 갓섯스나 년령이 차지못하기때문에 작부허가를 내일수가업게되자 복녀는 친부에게공연히여기에 두류하면 의복대와 식대등만느러가겟는데 다려가도록해달나고 편지를보내엿스므로 김리점은 강국주에게 이뜻을알니자 지금다려갈려면 의복대、식비등륙백오십원을 지불해야된다는 위협을햇고 그다음에는 자기가주인에게 잘이야기하여 오십원만주고 다려가도록햇스니 돈을가지고속히 드려오라는 편지를하게되엿다

이소식을드른 김리점은 딸의신변을우려하여 부근에서 돈오십원을 빗내가지고 드려가슬때에는 오십원외에 또십륙원이든다하여 결국륙십오원을 바다먹고도 복녀를돌녀보내지안어 그대로왓다가 그후김리점의 안해조씨가다시가서다려왓다

이때문에 김리점은 려비기타를합하여 불소한손해를보게되엿는데 평양서에서는 이사실을탐지하고 강국주를 횡령범인으로체포취조중이다

巨金稅金을橫領

【新義州】 철산군참면(鐵山郡站面)면사무소서기 오승환(吳承煥)(?)은 지난달초순부터 수회에 이르러도박을하야 사백여원의부채를지게되엿슴으로 이를보충하려고 동면호별세 일천칠백원 횡령한후 다시그곳자산가 최창립(崔昌立)의호별세 일백구십원을 증수하여가지고 안동으로도주하야 도박을하든중 안동서원에게체포되엿다한다

大空을직히는 監視哨員美談

關係方面에서感動

【總督府許可濟】 총후조선의공중을직히는 방공감시조(防空監視哨)의 비장한임무를 수행하얏다는미담이 요지음 경북에 보고된사실이잇다

즉경상북도 영일군 포항읍의 산동(廬北洞日都酒項浦屯山洞)구십칠번지 애비웅배 일동명대내수大內壽(?)씨는 그로모토미우물에 그처‖마사꼬‖여사와그소생두아이들을 다리고 그날그날을지내오든중 그처는 사월일일남아를 분만한후 산후여증으로병석에 누어잇게되자 대내씨는지난번 방공의 중요임무를가지고방공감시초로 봉직하게 되엇다 병석에서 신음하는 그처는『당신은 오로지감시초의 당번이 아니냐 나의병은 걱정마시고 근무시간이 늦지안토록 속히나가보시오』하는 그처의제촉을바드며 나섰다 ...

하자그처는 영영이 세상을떠나고 대내씨는『사사로하야 공무가 소홀하게 되는것은 본의가아니라』하야 근무하고잇는동안에 불행히 그처는 세상을떠낫다 ... 처로부터 ‖가려한일의 경우가 잇드래도 직무수행을 맛치기까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 는말에 분연히 이러나서 직무를 계속하고 잇는동안 오전삼시에 감시초에 드려왓스나 일각이고 여하히 처의중대를 전하는전화가 맛치내 원통하다는 기별이드러왓을것이나 그는 감시초근무의 일당을 맛친후 집으로 돌아왔다 ... 당신은 지금여지하야 도라오신다는 도리가복족 병석에있는처는 ... 용오로 동리들의 권고에의하야 대문밧게 잇스면 내병만터 중하야질것이니 곳직무에 드러가주시오‖ 현이니곳직무에 드러가주시오‖ 한말을 남기고 ... 대로잇스면 내병만터 중하야질 ...

第11回 中等籠球聯盟戰 第九日

電機軍을擊退코 京師依然全勝

中央、二高、大東도各勝

朝鮮中央基督教青年會主催의第十一回京城中等學校籠球聯盟戰 第九日은 十六日午後六時半부터 鍾路靑年會 室內『코―트』에서 中央對京工、電機對京師、二高對商工、大東對一高等의 四競技가 擧行되엿는바 中央軍이京工軍을 大勝하엿고 京師軍은電機軍을 大差로 一蹴하야全勝街道를 上昇케하엿다 今十七日에는第二部의 首位爭奪戰이라할만한 九戰八勝一敗의 快記錄을 가진二高軍과 四戰四勝의 全勝을 期待하고잇는 京師軍과의 壯烈한激戰이 擧行될터임으로 當夜의 人氣는 非常할것으로 豫想되는데 이날도 萬若 二高軍이京師軍을 一蹴한다면 各一敗의 同率勝率을 갓게됨으로 이 接戰이야말로 兩軍의 勝敗를 저울질하는 一大激戰을 이룰것이다

中央46 (23…23 11…5) 16京工

【第一次戰】二部의 中央對京工戰은 同日午後六時半부터 金振秀、田邊兩氏審判下에 開始되엿는데 中央軍이 四十六對十六의 『원사이드게임』으로 京工軍을 이겨 四戰二勝二敗의 戰績을 가지게되엿다

反	後	前	【中央】		【京工】	前	後	反
0	12	1	李祖永	F	朴應夏	2	2	0
3	0	12	李鍾瑞	F	金相徹	0	0	0
0	2	4	白承福	C	韓址榮	1	4	2
				C	朱仁基	0	0	1
0	0	2	吳斗機	G	吳恒敏	2	3	3
0	7	0	曹富錫	G	鄭鎭洪	0	2	1
2	2	4	安德濟	G				
5	23	23				5	11	7

京師72 (47…25 19…26) 45電機

【第二次戰】二部의 京師對電機戰은 同日午後七時十五分부터 金致雲、金鶴龍兩氏審判아래 열렷는바 開戰七分에 十六對十六으로 第一次同點된後 戰勢는 一進一退로 나가드니 電機軍이 二十六對二十五의 一點差로 敏捷한 速攻으로得點을獲得하야 電機軍이『리―드』한다음 後半戰에 드러가 京師軍의 猛擊猛烈하야 連續投球成功으로 大量得點을 어더 結局七十二對四十五로 京師軍이 大勝하니 京師軍은 四戰四勝의 快績을보히고잇다

反	後	前	【京師】		【電機】	前	後	反
0	12	16	金振八	F	崔景俊	4	3	1
0	0	0	羅五福	F	徐春吉	15	8	3
1	15	2	李永秀	F				
0	6	2	劉思世	C	尹殷秀	3	2	1
1	2	0	邦聖天	C				
1	0	3	木本	G	梁泰鉉	2	4	1
0	10	2	郭英信	G	崔仁彦	2	2	3
1	2	0	全永強	G				
1	0	0	文英漢	G				
5	47	25				26	19	9

二高47 (18…29 5…11) 16商工

【第三次戰】二部의 第二高普對京城工業學院戰은 同日午後八時十分부터 李登濟、申光浩兩氏審判으로 開始되여 二高軍開戰劈頭부터 攻勢猛烈하야 最後까지 商工軍을 壓倒하야 結局四十七對十六으로 二高軍이 大勝하야 九戰八勝一敗의 戰績을 가지엇다

反	後	前	【二高】		【商工】	前	後	反
0	6	2	李鍾九	F	崔貞錫	6	2	2
1	4	10	李永洪	F	李應夏	2	0	4
0	2	0	崔鶴	F	金錫	0	0	2
0	2	8	鄭源楠	C	張仁榮	1	1	3
0	2	6	朴相培	G	李春三	2	2	0
1	2	3	安相珪	G	白成琪	0	0	1
0	0	0	朴好根	G				
2	18	29				11	5	12

大東40 (20…20 13…18) 31一高

【第四次戰】二部의 大東對一高戰은 同日午後九時五分부터 李聖澤、陳永得兩氏審判下에 開戰된바 一高軍急激에 大東軍不振하야 前半戰에는 二十對十八의 二點差로 大東軍優勢하엿스며 後半戰에는 大東軍의 大量得點으로 結局四十對三十一로 大東軍이 快勝하야 四戰三勝一敗의 戰績을 보이고잇다

反	後	前	【大東】		【一高】	前	後	反
0	8	10	林順華	F	朴惠洙	1	0	0
0	2	0	尹興吉	F	文德河	0	0	0
				F	李重潤	1	2	1
3	2	0	金巖泰	C	李昌河	6	2	1
1	0	6	王玉伊	C				
2	8	4	金鑑承	G	車鳳潤	8	7	1
2	0	0	尹勝炎	G	朴炳國	2	2	2
0	0	0	諸逵萬	G				
8	20	20				18	13	5

中等籠球리―그第9日現在

【第一部】

	中	培	靑	徽	協	儆	道	(比率)
1中東	:		○			○	○	1.000
1培材		:		○	○	○		1.000
2靑學	●		:		○	○	○	0.750
3徽文		●		:	○		○	0.666
4協實		●	●	●	:		○	0.250
5儆新	●	●	●			:		0.000
5道商	●		●	●	●		:	0.000

【第二部】

	師	二	養	大	一	央	善	京	電	普	商	(比率)
1京師												1.000
2二高												0.889
3養正												0.750
4大東												0.666
7一高												0.250
5中央												0.500
6善隣												0.333
7京工												0.250
7電機												0.250
8普成												0.000
8商工												0.000

【備考…○은勝●은敗】

中等럭비―豫選日程

明春一月初旬부터 阪神南甲子園球場에서 開催되는 第二十回全日本中等學校럭비―選手權大會朝鮮豫選會는 來二十一日午前十一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하게되엿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 이豫選戰에는 北朝鮮代表(未定)를비롯하야 培材、道商、善隣、養正、京師、京商、南朝鮮代表(未定)等의 八開校가 出場케되엿다 그리고 昨年度全日本選手權獲得校인 培材는 第一回戰에서 相對校善隣軍의 棄權으로 因하야 準決勝戰에드러가 道商對北朝鮮代表의 勝者와對時케되엿다

▲二十一日(午前十一時半)◇第一回戰 A、南朝鮮代表對京商 B、北朝鮮代表對道商(零時四十分) C、養正對京師(一時五十分) D、培材對善隣(棄權)

▲二十一日◇準決勝 A의勝者對B의勝者(二時) C의勝者對D의勝者(三時)

▲二十五日午後三時半 ◇決勝

今日의運動

▲籠球=朝鮮中央基督教青年會主催第十一回京城中等學校籠球聯盟戰第十日 普成對養正(午後六時半) 二高對京師(午後七時二十分) 善隣對商工(午後八時十分) 協實對中東(午後九時) 以上全部鍾路靑年會室內『코―트』(場內整理費十錢)

病을곳치려면…먼저 胃腸을튼튼하게하자

病床에누어계시는분이나 慢性胃腸病으로알코계신분들은 구미가나지안어서 좀잡수시지못하므로 榮養이不足되게되야 漸次 衰弱은심하여가며 病도 오래끌게될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몸에 가장必要한 榮養素인「비타민비」라는成分이 不足한까닭으로 그런것이니 이런때에「비타민비」의진국인 麥酒酵母劑 에비오스錠을 服用하시면 胃腸의活動力을 바로잡어서 食慾이나고 잡수신것이 모도살로감니다

첫재로변통을좃케하여야된다

늘 머리가무거우며 부룽이나고 배속이거북하고 변통이 좃치못하신분은 일시적듯는다고 흔히 胃散이나 부룽약을 服用하시나 그것은 인어백이게되고 分量도 점점늘녀가야 되게되는것이나 藥을끈치면 또다시 再發하오나 에비오스錠은 根本的으로 이런症勢를 곳처줌니다

허약한어린에는이러케곳처자

반찬투정 밥투정만하고 잘먹지안는 아해들도 에비오스錠을 服用식힌後로는 밥도잘먹게되고 發育도健全히되어가고 집안사람들도 모도무병하게되어 健康에넘치는幸福한날을 보내시게되엇다고 稱讚을밧고잇슴니다

藥用에는엇재서麥酒酵母劑라야만되는가

麥酒酵母는 모든自然物中 비타민비를제일만이가진것임으로 日本藥局方의藥用酵母의條文에도 반드시 麥酒酵母에한한다고 明記되어잇는것으로도 아실줄밋슴니다 그러므로 慢性胃腸病 기부족 주체 姙娠前後의衰弱症 젓이안나오는데에는 꼭 服用하여주시기를바람니다

三〇〇錠…一圓六十錢 一〇〇〇錠…四圓八十錢 그외各種粉末도잇슴니다 全道藥房에서販賣함

삿뽀로・에비스・유니온・아사히麥酒釀造元 大日本麥酒株式會社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ヱビオス錠

에비오스정

明治座

十一月十五日(月曜日)ヨリ上映プロクラム

	一回	二回	三回
ニュース	11.00—11.10	2.40—2.50	6.30—7.00
支那を裂く	11.11—11.41	2.51—3.21	7.01—7.41
母への抗議	11.42—12.50	3.22—4.30	7.42—8.40
ニュース 支那の戰線	12.51—1.20	4.31—5.00	8.41—9.10
プラーグの大學生	1.21—2.39	5.01—6.16	9.11—10.??

十一月十六日낫부터三日間 晝二回 낫一時밤七時十五分 大東京錦上映 英國고몬映畫超特作日本版 東和商事提供特作映畫의最高峰

風雲의歐羅巴 조지、아리스主演

◇新興키네마超特作現代名篇 月よりの使者 入江たか子・高田稔主演

◇大阪每日・東京日日ニュース 支那事變第十九報 朝鮮初有의音樂映畫大司畫 ‖同時二週上映‖

往十里 光武劇場

活日 17日ヨリ開館一週年記念興行 毎日午前十一時ヨリ 先着大人無料入場券進呈

天然色映畫 明へ青空 若しも月給が上ったら 大每・讀賣ニュース 支那事變速報 高原の魂

2・25 6・30 / 11・30 3・20 7・25 / 12・30 4・20 8・25 / 12・45 4・35 8・40

黃金座

劇界의寵兒!! 劇團青春座特大公演 ◇十一月十一日부터 ◇待望傑作遂上演!! ‖上演劇目‖

李瑞求作 「그늘에우는天使」三幕 사랑을爲해몸을팔고事業을爲해一生을눈물로!! 그늘에우는한쌍의꼿과가튼佳人哀話를그린이한幕은눈물바다를일우고 李瑞求氏의最近傑作中白眉篇! 꼭보아주십시요(但한가지必要)

南宮事作 「세상은속임수」二場 興味로도百퍼―센트지만暗示性을주는百五十퍼―센트의大快笑人情喜劇! ‖每夜七時十分開演‖

東洋劇場

今週十六日부터十八日까지 夜間七時一時부터 料金三〇錢均一 ◇光晴博寶電影◇

▲RKO超大作品 귀찬은사람들(うるさき人々) 主演 란도루…케이…스콧트

▲마기노・토―키―超特作品 忠烈肉彈三勇士 富豪에家庭에서이러나는怪!殺人事外이突發되자이話題에事件을싸고도는것을社會에切實히들처내인것!

▲마기노・토―키特作 マキノ正博作品主演 青春五人男 珍優田村邦男力演

團成社

本社平壤支局 電話一〇四四

戰時體制完備하는 大本營設置經緯

그間에 議論이 紛紛하얏스나 結局純統帥機關으로

戰時體制의 完璧을 期하는 最近 工作이라할「大本營」이 設置되게되엿다 大本營의 設置는 實로 日淸, 日露의 二大戰爭以來의일로 今回로 세번재이다 그러한것도 大本營이라는것은 戰時에 統帥하시게도 大元帥陛下께옵서 帷幄을 統帥하옵시는 本營을 指稱하는것인바 이번의 日支紛爭이「事變」으로「戰爭」은아니라는 見解에서 世上一部에는 大本營條例適用의 是非에對하야 憲法論上 多少議論의 餘地가잇지안흔모양이나 緊迫 必要한 事實의 압헤는 如斯한 一片의 對內的法理論等은 問題가아니다 況且 이번事變은 名稱은「支那事變」이나 實質的으로는 兩國의 大戰爭이고 또 日支兩國의 單純한 衝突紛爭이 아니고 複雜微妙한 國際的影響에 잇는 國際情勢의 斧鉞을 無視할수는업다

따라 此確固不動한 事實아페 如斯한 法理的疑義도 스서로氷解되지안흘수업다는것을 窺知할수잇다 幷히이번의

「大本營」은 明治三十六年에 改正된 戰時大本營條例를 適用하는것이아니고 首相의 副署에依한 詔勅과 陸海軍大臣의 副署에依한 軍令으로써 設置되는以上 事變이란든가 戰爭이란든가하는論議도 亦是스서로 解消될것이다 이에잇서世人一般이 다가티 疑念을가지는것은

一、왜 大本營을 設置할 必要가잇는가

一、그리고 其目標는 어데잇는가

라는 點에 關一하리라고 解釋되므로 爲先 此點부터 解剖하야보기로하자。

一言으로 말하면「戰時體制의完璧을 期한다」할것인바 이번事變이 如何히 帝國正義의 使命에 基하는것이라할지라도 在支權益을 中心으로한 列國中에는 自國의 利害關係로 도리혀이를 直接間接으로 妨害하려는일이 不少하야 事變處理의 巧拙如何가 實로 帝國國運의 消長에重大微妙한 影響을 齎來할것은絕對로 避키어려운일이라 하지안흘수업슬것이다

「政府가」事變發生以來 擧國一致 時艱克服에 萬遺憾업는 工作을 施하고 또內閣强化와 國內相克緩和를 爲하야 內閣參議制를 設置하게된것等 有終한戰果와 時局收拾의 完璧을 目標함에 不外하다할것이다

그러나 事變의 最終目的達成을 爲하야서는 이것만으로는아직 政府의「힘」에 信賴키어려운 不足點이잇섯다

이에잇서 일즉이 擡頭하고잇든「大本營」設置의 要望이 俄然 有力히 具體化되게된것이다 따라 이번의 大本營設置는 事變의 規模와 性質의 重大性을 示現하는 一面에잇서 從來의戰時體制라는것이 政治的으로나 또는 行政的으로다 完成되지못하얏든것을 證明하는것도된다 이번의 大本營論의 震源地는 軍令系統, 特히 參謀本部側에 잇슴을 이저서는 안될것이다 議會 第七十二議會에서 中野正剛氏가 大本營設置를 主唱하얏든바 이도 三宅坂의 意見論을反映한것이라고 傳한다

「要컨대」이번의 大本營은 全然 統帥權의 發動에 依하는것으로 이에依하야 軍의作戰行動와 戰爭指導의 强化를 圖함을 目的으로하야 所謂 戰時體制의 完璧을 期하야써 國際的으로나 또 國內的으로나 收拾이 極히 困難케되는 事變處理와 支那側의 長期抗戰에 備함이 此大本營設置의 根本的理由라고 보면 大體 틀림이 업슬것이다。

그러므로 此機構內에 軍人以外의 首相과 外相等이 參畫함과 如한일은 잇슬수업는同時에 大本營設置에 依하야 軍政府的인것이 생길과 如한일도 亦是업슬것이다 이리하야 三宅坂의一部內에 擡頭한 此大本營設置의要望은 時局의 進展을 따라 漸次 그것이 各方面에 反映擴張되게 되엇든바 그것이 設置되게되기까지의 陸海軍部內에서 또는 閣內에서 賛否兩論이 對立되엿든 經緯를 맛보기로하야야할 必要가 잇슬것이다

大抵 이번의 大本營設置에對하야서는 어데까지든지 이를純然한 統帥機關으로하려는 軍部方面의 意向에 對하야 近衛首相側近의 有力側에서는

「事變을」處理하기爲하야 內外의 重大性에 鑑하야 이를政治와作戰을 一元化하는機關으로하고 其機構內에는 軍人以外에도 首相等의 參畫을 認하게할것이라는 理想論을 提唱하는側도 不少하얏고 그리고 또 [illegible] 此大本營設置를 [illegible]「事變」을「戰爭」으로 [illegible] 主張이 [illegible] 大本營을 [illegible] 設置할것이라는 [illegible] 結局 [illegible] 大本營이 誕生되게되엿다 그러므로 此大本營은 支那事變에 對한 陸海兩軍의 作戰의 一元化를 中心目標로 하는것이므로 直接으로는 行政部의 權限에 부드치지안는터이다 그러나 事變擴大의 推移에 伴하야 複雜化하는 外交經濟財政과 思想戰에 備키爲하야서는 事實上 統帥와 行政의 幷立强化와 其間의 聯關性을 圖하게될것은 必然的歸結이라고 안흘수잇지안흘가

또 注目할 「重點은」明治三十六年에 改正된 戰時大本營條例를 適用치안는가하는 點이다

이에對하야서는 單只「事變」과「戰爭」을 區別하는 程度의 微妙한 것이아니고 統帥와行政의 微妙한 權限關係에 基因함을 看過할수업슬것이다 其主要條項을보면

第一條 天皇의 大纛下에 最高의 統帥部를 置하고 이를大本營이라稱함(第二條省略)

第三條 參謀總長及海軍軍令部長은 各其의 幕僚에 長으로서 帷幄의 機務에 奉仕하고 作戰을 參畫하며 終局의 目的에 稽하야 陸海兩軍의 策應協力을 圖함을任으로함

이라는것으로 따라 此條例를適用하게되면 一切의 政治行政의 機能은 國家의 最高目的인 作戰下에 歸一되므로 軍部大臣의 地位는 軍令系統에 對하야 非常히 從屬的으로되는것이다

그러므로 政府가 此大本營設置를 꺼리는 態度를 示하야온것이라고보인다

이에잇서 이번의 大本營은 此間의 微妙한

「摩擦을」適當히 按配한 全然 別個의 詔勅과 軍令에 依하야 設置되게되지안헛는가보인다 이로써 政府가 軍部大臣을 通하야 大本營과 幷立하야 其間에 微妙한 聯關性을 保持하야 戰局의推移에伴하야 事變의目的貫徹과 善後處理에 萬全의 策을 施하려함은 말할것도업슬것이다。

그리고 大本營出現이 齎來하는政治的 特異性도 亦是 此點에서 볼수잇지안흘가 果然 政府가此 大本營의 誕生에依하야 如何한 政治의 實을擧하아메 具現할가 注目을 끄을고잇다。

그리고 最後로 既報 日淸、日露兩戰爭當時의 大本營의 前例에 徵하야보면 今回의 大本營陣容이 大體 如何한 面貌에 依하야 占領될지 想像할수 잇는바 首相以下 各大臣과 樞相等은 必要잇는境遇에限하야 特히 會議에 參列을許하게되지안흘가고보인다

寫眞은 ○○城壁을 警備의 皇軍 (京漢線)

運動競技

"蹴球日本"과 WMW型의印象記 ②

朝鮮蹴協理事 李榮敏

WMW型의3B守備陣과 W型FW二線攻擊陣에 對하야 淸蹴은 得意의 長蹴과 FW兩翼의 駿足을 利用하야 左右翔角을 基礎로 攻擊體를 取하엿고 守備陣은 3B陣을 可及的形成하얏든것이다。

그러나 이試合에잇서 戰術上評價하는 標準에서 본다면 淸蹴은 WMW의 3B守備陣에 對하야 兩인너는 五六米를 後退시켜 W型FW二線을 構成하야 守備와 連絡을하고 敵HB를 誘出시켜 攻擊의 機會를 보아 兩翔의 長蹴을 敢行하야 守備陣을 突破케 하얏고 敵의攻擊體를 看破하고 3B線을取하야 對人的徹底한防禦로 敵의攻擊線을切斷식히에用意하얏든것이다

在來로 淸蹴陣만이아니라 우리蹴球界의플레이는 全般的으로 位置的플레이로서 球를따라 敵前에서 쏫는파쓰로 連絡하야 FB의마크를 動搖시켜 그敗惡함을 기다려 푸리숏을하얏고 HB線의攻擊參加가업는點에 致命的缺陷이잇서 攻擊의興味를 喪失한點이 實際的으로 認識되엿든것이 近來多少FW와 HB의 連繫와FW間에長短파쓰의適切한 戰術이되여간다하드라도 그位置의配置는푸리숏을捕捉하라는것과 防禦線에兩인너의協力不足等이顯著하엿스나 淸蹴은 短點을버리고 效果的防攻戰을 敢行하야玉碎主義로實力以上의 最善을發揮한것이다

過去우리蹴球界는 現在의滿足에 아닌滿足을 늣기고 固定的態度로 發展向上업는일을 되푸리하고 잇섯다해도 過言이아닐것이다 보라 十年間의日本蹴球界의發展을! 朝鮮蹴球協會가 先進의認識을가지고 創立滿一年만인 昭和十年度全日本選手權大會及明治神宮體育大會에朝鮮代表로 京城蹴球團을 派遣하야 覇權을 獲得한以後 十一年度에 普專, 十二年度 選手權大會에 全普專明治神宮大會에 淸蹴을派遣하얏스나 連覇의궁은 깨여젓다 果然우리는 蹴球에對하야 先天的素質을 가지고잇는가? 個人技術의特秀함은千年의長이 된다하드라도 우리는 頑執한 蹴球에留意치못하얏고 無軌道的 蹴球를하여왓든 아닌는지? 우리는 우리蹴球界에 關心을 積極的으로 가저야될것이다 自然趨勢에 좃는 蹴球界의 行爲가 아니라 蹴球體的의 行爲를 要求하는것이다 우리는 一步進하야 새로운 留意로서發展向上을 爲한 諸機構의 强化와 擴充가될만한 實際家를 要求하는것이다

오직 指導級에 잇는 先輩들의 새로운 覺醒을 바라며 誠意와 信賴할만한 中堅人物들이 指導되여 精選함이 잇기를 衷心으로 바라는바이다

끄트로 今般 決勝戰에 잇서서 審判不信問題에 對한 淸蹴의態度로 蹴球界에 輿論이 不少한듯함으로 一言을 附코저한다 當初問題는 主審과 線審의 不統一로 發端되여 끗이나? 업사이드냐? 하는問題이엿다

勿論 우리는 이러한 大會에 잇서야 할것이오배울것은 態度로 試合의 進行上 乃至 審判의 難關 乃至選手의 精神的態度에 至하기까지 注目하야 考慮할 것이고 努力하엿든것이다 上述한 不統一된審判問題도 他競技는 規則만을 主로한 審判의行事에 不過하되 蹴球는 審判의 人格을 主로한 規則解釋이 됨으로 其權限은 絕對的이며 이로 神聖視되어잇다 即良心의 指示이여야할것이다 그럼으로 上述한 審判不信問題도 良心의 指示가 끗이아니요 업사이드?이엿기를 나는바란다 今般大會에잇서 日本蹴球協會에 對하야 나의所信을 一一히 指摘하야 直接或은公的으로 披瀝하야 批判을 要求하고도잇섯스나 우리는 우리蹴球界를爲하야 外部人士들의 意見이며 本質的理解로서 忠告가 잇기를希望하야 마지안는바다 (完)

明春日本에來征할 코린산蹴球團戰績

明春日本에 來征하는 倫敦의『아마츄어』蹴球團 아이린톤·코린산蹴球團은 十月十五日 伊太利를最後로 歐州轉戰을마치바 五試合에 不敗의記錄을 남기엇다

對헤ー그(和蘭) 0:0無勝負
對하ー렘(和蘭) 2:0勝
對DWY(和蘭) 1:1無勝負
對[illegible](和蘭) 3:0勝
對베룬(瑞西) 4:1勝

이非常時에맛당한 건강한일군이되자

림질을못곳치고게시면

① 고통과번민으로 자기신세가딱하게 됨
② 처업는분이게 전염식혀집안이딱하게됨
③ 國民健康을해롭게하고생各경장에지게됨

백발백중 으로根治되는

再發되시는분 (치운요새에 다시고뎌발되어 고통을밧는분)

苦痛이심한분 (오좀누기에도곤난을맛고 허둥지둥하시는분)

內服藥을쓰는분 (떠부듯이 장복해도낫지안코신세한탄하는분)

아해못낫는분 (아해를못낫코 쓸쓸한 세월을보내시는분)

부인병알는분 (남편께림질이옴기어잇스면 반드시 전염된다)

二重殺菌療法이되는『부라온銀겐고ー루』로치료하시면 가정에서도 短時日안에 감쪽가치근치되어버립니다

지금 결혼하셔서 고통을 밧고게신분이나 혹은 만성고질이되야 여러가지의치료약으로도 낫지안하서신세 타령을하시고게시는분은 조금도 주저마시고『겐고ー루』의『一號』를 쓰시고『二號』를계속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인께서는『三號』를써주십시요

世界的大發明 二重殺菌의 겐고ー루

재래의治淋劑에서는 볼수업는 二重殺菌療法으로써 百發百中으로 患者를 병고에서 버서나시게만들고잇는『부라온銀겐고ー루』의 공적은 나날이각지의환자께서 보내는 눈물겨운감사장과치찬이 山積하고 잇슴으로 능히 짐작이 가시리이다 즉 短時日에낫게되는때문에 환자제씨를 벌일만 아니라 경제적고통에서도 속히 버서나게 만들고잇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병고에버서나실 여러분은 본발매원에한하야 송료는 신청자 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 송아해드리오니 속히『겐고ー루』로 치료하시사 根治의깃붐을어드시기바랍니다

東京市芝區田村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洞原商店

약가는 보급약(各號別)一圓九十錢 十七日分……三圓八十錢입니다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二重殺菌療法 「겐고ー루」만이 림질을根治식혀줍니다

사람의人情으로 어느분을勿論하고 속히병고에서 버서나시랴고 이약저약을쓰시면서 애를 쓰시나 엇재서 림질만은 그럿케 잘낫지안코 再發되시는분이 만흐신가 하면 그理由는 患者여러분께서 치료약의 선택을 잘못하시기때문입니다

먹는약

림질을內服藥으로 곳치려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신바와가티 복약을하실동안에는 좀 증세가 개이는하다가 또다시 再發되시고게시지안습니까! 그원인은『內服藥으로는 림질의 병회근인 노도조직심부의 림균이 죽지안는때문에 절대로根治되지안는다』(獨逸性病學會報告)의탓이니 現今 醫學界에서는보조제로하게 內服藥을 쓰지안코잇는것으로도 잘아실줄밋습니다

그러면 世界의醫學界에서 채용된 직접치료약(局所藥)이면 다 조흐냐하면그러치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局所藥은 單一性能바게업기때문에 시험결과는 다른효과를 나타내이고잇스니 그것은 이런點이 불완한까닭이엇습니다 즉

사람몸은 살어잇스니

그에合當한二重殺菌

을하여야만 림질은 根治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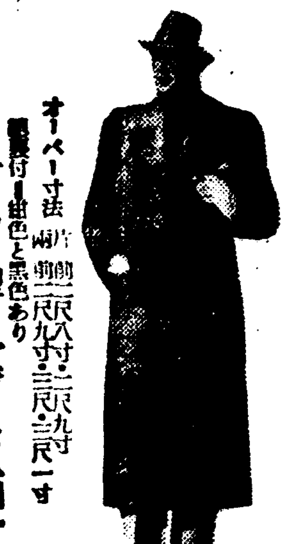
왜그러냐하면 사람몸은 살어잇는세포로 된만큼 작고 변화가 생기게됨으로『부라온銀겐고ー루』와가튼 强力한殺菌力을가진藥으로 그조직변화에 맛당한 약효가 장구되어야됨으로 이點을 世界的大發明한것인약이기때문에 림질은 반드시『부라온銀겐고ー루』만이 根治식혀주는것이 됩니다

더구나 醫師專門藥이오며 자택에서 간편히 사용하야 유명한병원치료와똑가튼치료효과를어들수잇는 약이니 아무방울로 단二分間이면 치료효과가 나타남으로 그얼마나 신속한 효력이 잇는것을 여러분이 곳 깨다르실수잇습니다

ラシヤオーバー大奉仕

オーバー寸法 片前二尺八寸・二尺九寸 兩前二尺九寸・三尺・三尺一寸
襟裏付 紺色と黒色あり

二六號 片前型 一着 金八圓十五錢
兩前型 一着 金八圓六十錢



高級ラクダオーバー 紺と黒色あり

二八號 片前型 一着 金十四圓八十錢
兩前型 一着 金十五圓五十錢

紳士用柄兩前オーバー

色合は 茶・鼠色 青中年向
三一號 兩前型柄オーバー 一着 金十三圓九十錢

朝鮮オーバー大見切品 紺色に限る 二尺九寸・三尺

十二圓五十錢賣を特に
三五號 特製ベロアー 一着 金八圓五十錢

ウーステッド三ツ揃背廣服

寸法は大・中・小型あり 特大型一割高
色合 茶紺・青中年向 柄は斜線又は縞柄
一〇號 三ツ揃 一着 金十三圓八十錢

星印 本毛厚サージ三ツ揃背廣服

別仕立最高シルバー裏付 黒・紺あり
一七號 三ツ揃 一着 金十八圓八十錢

紳士 スポーテックス三ツ揃背廣服

色は 茶・鼠・紺色あり 萬人向の無地柄
二一號 三ツ揃 一着 金二十圓五十錢

特製黒セル詰衿上下服

玉錦絲コール天特製學生服

仕立入念裏付の金ボタン付なり
十九號 詰衿上下組 一着 金六圓
廿二號 詰衿上下 一着 金八圓五十錢

金ボタン付長ズボン付上下一着
尺一 一年用 一圓九十五錢
尺二 二年用 二圓二十錢
尺三 三年用 二圓四十錢
尺四 五年用 二圓六十錢
尺五 六年用 二圓八十五錢
同 中學生用詰衿小型 三圓四十錢
同 中型 三圓七十錢
同 大型 四圓

玉錦コール天作業服

寸法は 大・中・小共に同値
ダブル型 バンド無
上下服 特價 一着 金三圓八十錢
長乘馬ズボン付 二十錢高

青年團服と軍靴の奉仕特賣

寫眞ダブル衿
大折詰ダブル衿 同中 値小衿衿衿
國防色スレン生地
特製團服 一着 二圓四十錢
戰鬪帽 個 三十八錢
人型帽 個 四十三錢
ゲートル 打 三十一錢
コンノト型帽子 四十五錢

特製訓練靴 耐久完全無敵品

一足 三圓八十錢
文數は十文より十二文迄同價 御指定下さい

名古屋千種區今池電停前 合資會社 加藤營業所 振替名古屋二八九番
御注文は葉書にて、送料は御買主拂

世界의자랑

天下의補藥中百補丸갓치 몸에利한藥이다시업습니다

陽氣·精神·氣血·胃腸等이모다 조와지고、食事가倍加됩니다

▲病弱人은疾病治療劑로
▲氣血虛弱人은補血强壯劑로
▲陽氣不足人은精力補給劑로
▲中年人은老衰防止更少年劑로
▲藥効信用天下第一!

非常時代는健康이第一必要

漢方호루몬强壯劑

一、近來盛히 떠드는 호루몬劑도 漢方에서는 벌서 一千餘年前부터 使用해온것입니다

二、百補丸에 含有한 호루몬은 實로 高貴玄妙한 性質이 잇습니다 百補丸은 實로 累試累驗의 名藥인故로 絕對自信을 가지고 藥効를天下에 推奬합니다

三、元氣不足、陽氣不足、胃腸衰弱、消化不良、神經衰弱、不眠症、貧血症、肺弱、疲勞、盜汗、營養障碍等에는 唯一한 多元性治療强壯劑입니다 病과虛弱으로 걱정말고 至今곳 百補丸을服用하시요

▲補藥은漢藥이第一 (朝鮮人體質에잘맛고 効力깁고永久합니다)

高貴漢方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滋陰補陽補腎補肝補心補腦補脾補胃補氣全身百補不老長生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倍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虛弱이過度하면 百藥이無効한法

不治의難病도小小한 虛弱으로부터始作!

[illegible]

체증을 根治하려면

消化劑를쓰지말고 健脾强胃劑를쓰시요

●百補丸은健脾健胃作用이强大함으로 年久체증이떠러지고 氣血이旺盛하고 陽氣가大旺되고 腸胃가튼튼하여짐으로 一擧兩得이됩니다

●체증에對하야 一時的病者의好感을주기爲하야 消化劑量大的으로 宣傳販賣하는곳도 數多하나 此等消化劑로체증이 根治되엿다는말은 드러보지못하엿슬것입니다

●百補丸은 健脾消滯의 二重作用을 함으로 체증消化不良을根本的으로 곳치려면 亦是百補丸을쓰는것이第一 完全합니다

百補丸의効力은 이러케굉장합니다

[illegible]

高貴漢方 婦人百補丸 發賣開始

生男生女·天下待望의世界的名藥

藥價 百補丸 一劑 [illegible] 婦人百補丸 一劑 [illegible]
無料進呈 [illegible]

京城府堅志町五、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三三〇番·振替五番

地方論壇

水道節約하는 面當局에 告함

[illegible]에 上水道가 必要하다함은 다시 [illegible]바도아니나 거듭[illegible] 치안커니와 무엇보다도 急先務인 이上水道가 今日에 實現되엿다함에는 오히려 늣진感이 不無하다 이땅에 이백성이 가장 要求하는것이 물, 물, 이것인데 무[illegible]이 [illegible] 가장重大한 [illegible]이다 이에 今日上水[illegible] 것은 事實이다 [illegible]가 實現되엿스니 [illegible]할것이다 그러나 近日에 面當局의 그[illegible]을 보건대 모처럼 實現된 [illegible] 마지안는바이다 그리하거도 [illegible]에서이 소리처 [illegible]하는 물, 그것을 주게되엿스니 [illegible] 百年동안을 물에 목말라하든 그들에게 힘것 마시게 줄것이 아닌가 따라서는 [illegible]도 그네들이 내이며 그費用도 그네들이 내오니 費用이 만히 [illegible] 되여도 그[illegible]이 아닌가 [illegible]하고 水道[illegible]에서 [illegible] 不足되게하니 水道를 [illegible]하니 [illegible] 一時[illegible] [illegible]이 [illegible] 上水道를 [illegible] 하기를 바라며 [illegible]

鴨綠江水電의副産物

無盡藏의石灰山

江界郡外貴面서發見

이를原料로세멘트會社新設

【義州】 삼억오천여만원공사비의 압록강수전(水電)공사를 비롯하야 평북철도(平北鐵) 압록강철교(鐵橋)동 공사에 공급할 세멘트공장을 평북 삭주군 구곡면 수풍동(朔州郡九曲面水豊洞)에 설치할계획을 세우고 원석(原石)인 석회석(石灰石)의 산출지를 평북각지에 물색한결과 의주군(義州郡)하에서 발견하얏다고 전하얏는데 의주군하의것으로는 대부족하고 그리하고 다른지방으로부터 『원석』을 수입하야 만들려면 채산이 맛지안는관계로 고통중에잇든바 강계군하(江界郡下)에서 무진장의 대『석회산』을 발견하야 십오일 소야전(小野田)세멘트회사 지배인 산근차장(山根次藏)씨가 평북도를 방문하야 간부와 비밀리에 협의한바가잇섯다 즉『세멘트』원석인『석회석』발견지는 강계군 외귀면 건상동(江界郡外貴面乾上洞)과 건하동(乾下洞)의 경계에 존재한 일대무연산으로 동산은 거의전부가『석회석』으로 되여잇다는 전조선은 물론하고 동양적으로도 보기드물만치 무진장의 석회석을산출하리라한다『원석』산을 발견한 소야전(小野田)세멘트회사에서는 방금 압록강수전제일『땜』공사에착수한 수풍동(水豊洞)에공장을 설치키로결정하고 공사에착수하얏는데 이와아울러 만주측 수전(水電)에서도『세멘트』공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얏다한다 (사진은李仁洛氏)

慶南米收穫豫想

二百七十餘萬石

比昨年實收高의三割五分增

【釜山】 경남도 제이회미작(米作)수확예상고는 지난십오일 다음과가티 발표하얏는데 그총수확고는 이백칠십삼만사백륙석으로 제일회예상고에 비하면 십이만오천삼백팔십구석 즉 사분이리의증가이며 작년실수확고 이백일만팔천오십이석에 비교하면 칠십일만이천삼백오십사석 즉 삼할오분삼리의 대증가이여서 기록적인대풍작이라한다 그리고각 군별의 예상고는 다음과갓다

府郡名	水稻	陸稻	合計
釜山	一四、八五九石	—	一四、八五九石
馬山	一、八三七	—	一、八三七
晋州	一四二、六六四	六、三三三	一四八、九九七
宜寧	七八、六九六	三、八六六	八二、五六二
咸安	九六、九三六	三、一三六	一〇〇、〇七二
昌寧	一〇〇、八〇一	八、二六八	一〇九、〇六九
密陽	一六四、〇八〇	七、二二一	一七一、三〇一
梁山	八六、四四二	一、四八八	八七、九三〇
蔚山	一二四、八二九	六、六六六	一三一、四九五
東萊	一四五、六六六	七〇	一四五、七三六
金海	二〇九、七七九	二、八九九	二一二、六七八
昌原	二二一、三〇九	一、〇三一	二二二、三四〇
統營	一〇一、四六九	—	一〇一、四六九
固城	一五一、七七四	二	一五一、七七六
泗川	一三〇、四〇一	一、六六七	一三二、〇六八
南海	一〇四、一四一	—	一〇四、一四一
河東	一三四、二三〇	五三一	一三四、七六一
山清	一二五、六六七	一、六五五	一二七、三二二
咸陽	一〇六、二九〇	一、九五五	一〇八、二四五
居昌	一〇三、八三七	三六七	一〇四、二〇四
陜川	一二四、一七〇	五、三〇九	一二九、四七九
合計	二、六八九、六三七	四〇、七六九	二、七三〇、四〇六

텔롤이 출비한장소에는만큼 일시는 대소동을연출햇다

亡母遺志바더 千圓喜捨

趙銀珠氏의美擧

【江界】 강계읍동문동(江界邑東部洞)리이흡(李仁洽)씨는 륙십이세를일기로 지난십일 세상을떠낫다 씨는 만년독신으로서 그의딸과더부러 제일관(第一館)이라는 료리점(料理店)을 경영하야오다가 세상을 떠난것인데 그의여식 조은주(趙銀珠)씨는 어머니의 유지를받아 출장을하든압흔 지난십삼일밤 현재 사회의주목을 집중코잇는 강계사립영실학교(英實學校)에 금천원을 희사할것을발표하엿다 이에 동교유지회(維持會)를 비롯하야 일반사회는 감격하야 그의미거를 찬양하며 성대한영결식을거행하엿다

暗鬪、反目을일삼고 兒童訓育에等閑

各校長과監督官廳은聽而不聞의態度

平壤各普校訓導間의惡傾向

【平壤】 평양부내십개보통학교에서는 각기독특한교육방법에 따라 상당한성과를 보이고잇스나 최근각보통학교에서는 훈도와훈도간에서 삼각(三角) 사각(四角)의알력을 지어가지고 추잡한 암투(暗鬪)를 계속하고잇서 생도지도문제는 제이로하고 세력다툼과 추잡한알력의 반복을주요한사업으로 삼는경향이 아조 농후하여 각보통학교 직원실(職員室)내부에는 실로 모진바람이 계속된다한다 이때문에 교원간의 친목이업서지고 으르렁거리는바람에 이영향은 즉접간접으로 첨부지의 어린생도들에게까지 감염되여생도들사이에 큰폐단을이루어 그리하야 일반학부형들까지도 우려를 마지안는터이며 학교내부에서는 교장이 그리고 감독관청에서는 이러한경향을 충분히 조사하여 교육자답지안은 알투와 세력다툼하는 불량성잇는 훈도를 전근시키는 엄중한태도로립하여 부내각보통학교에서불순한 공기를일소하고 명랑한교육을 실시하기를 부르짓고잇는 터이라한다

海軍機全北號의 命名式盛大擧行

【全州】 백오십만전북도민의 총후적성으로 파반될군기 이대의 헌납식이 끗나자 십사일오후두시에또다시 조양전주공장 부지에서 관민(官民)유지와 생도등각군으로부터의 축만여명 참관리에서 대한해군기 보국제백십일호(報國第百十一號) 비행기명명식(命名式)이거행되엿다 식순에의하야식이 무사히종료되자 전주의 상공에는 전북호(全北號)외에 옹원비행기 오대가 저공비행을한후 동네시경에 제각기 소정의비행장을향하야 자취를 감추워버렷다는데 이번의 전북호 록해군상기의 명명식은 전북도사상(全北道史上) 찬연한페이지를남긴것이라하며 금번해군비행기 요목표(要目表)를보다면 다음과갓다

◇機種 九六式艦上爆擊機
◇型式 複葉二座(二人乘)
◇全幅 一一、四米
◇全長 九、四米
◇全高(水平) 三、九米

西城里에火災

【平壤】 평양부내 서성리(西城里)백삼십번지 리광련(李光璉)의 집에서 십오일오전세시 이십오분경 발화하여 주택일동을 반소 참고일동과 뜰에쌋어두엇든벼짐 백속을전소한후 다섯시경에 진화햇는데 손해는삼백원 원인은 담배불의 부주의로판명되엿다 부근에는 서성리교회당(敎會堂)을 위시하야 공장 주

安義航業의統制 今年中에는實現

鴨綠江水電의傍系會社로

朝滿間에兩個會社創設

【新義州】 압록강(鴨綠江)을 중심으로한 제선박(諸船舶)의통제는 압록강수력발전공사(水力發電工事)의 진보와아울러 파연불주한 구체화를보이여 관계방면에서대대적으로 준비를진행하고잇든데 대개금년안으로 통제의실현을보게될모양이라한다 즉 안의(安義)에잇는 유력한 항업기관(航業機關)을 근본적으로 일개의강력한 신주식회사의 형태로통제하는동시 압록강수전을 전회사의 방계회사(傍系會社)로써 수력전기회사와가티 만주국(滿洲國)은 만주항업주식회사(滿洲航業株式會社)조선측(朝鮮側)은 조선항업주식회사의 명칭하에 설립될것이라한다

長城郡初等教員 教育研究會開催

【長城】 전남장성군(全南長城郡)에서는 지난십사일부터 량일간 예정으로 군내십이교 칠십여명의 보교교원을 약수(藥水)공립보통학교에 소집하야 장성 박(朴)군수와 동군 김(金)내주임의참석과 동군 야상(野上)시학의 사회로 교육연구회를열고 초일에는 연구수업(研究授業)자평급질의응답(自評及質疑應答)비평회(批評會)연구발표(研究發表)로 동오후네시삼십분에 산회하고익일인 십오일에는 오전구시에동 삼천사에 참배하고 이어서 각교청년단기(靑年團旗)봉안식이끗난후 십시반에 장성공립보통학교에 참집하야 조합의순서를시어 각순서를진행후 동오후한시반부터는 각교직원의 체육회를 네시반에 야상시학의 폐회사로 성대히 회를마치엇다한다

發動機에감겨慘死

【牙山】 충남 아산군 도고면기곡리(牙山郡道高面基谷里)에 거주하는 박명복(朴命福)(二八)은지난십일에 자기집에서 발동기(發動機)로 벼(稻)타작을하다가 발동기 피대에 감기여 다리가 부러젓슴으로 즉시 의사를 다려다 응급치료를 가하엿스나원체 중상이 되엿슴으로 치료에 효과도업시 세시간만에 무참히도 절명되고 말엇다한다

大邱商議員改選

三十名當選者發表

【大邱】 대구상공회의소(大邱商工會議所)의원선거는 지난십오일 오전구시부터 대구공회당(大邱公會堂)에서 거행하엿는바 유권자총수 구백오십삼인중 투표총수가 칠백칠십구표로 기권률이 일할칠분이라고한다 그리고 조선인 삼백십삼표 일본내지인 삼백오십삼표이라고하며 오후세시반 개표한결과 다음의삼십명이 당선되엿다고한다

當選者氏名	得點數
大邱商工銀行	四五
韓翼東	四三
片倉製絲會社	三七
池二洪	三六
龍岡組	三四
佐伯仁正堂	三四
許智	三三
魚菜會社	三三
李根茂	三二
坂野組	三一
秋業義	二九
島田金四郎	二八
吉岡良左衛	二八
慶尙合同銀行	二六
靑木勝	二六
徐炳默	二五
中村八十八	二五
南鮮合同電氣	二五
林角助	二一
河野初治	二一
堀貫次	二〇
佐藤伊三郎	二〇
木島淸藏	一九
梅根榮平	一八
武田百藏	一七
李南夏	一六
朝鮮自動車會社	一五
南鮮運輸會社	一三
朝陽無盡會社	一二
金潤得	一〇

披露實費를節約 公共團體에寄附

【醴泉】 경북례천읍장(醴泉邑長) 서인관(徐寅寬)씨 장녀인 된 김연수(金然洙)씨는 피로연을 폐지하고 이 비용으로 금사백원을 내여 례천신사(醴泉神祠)방호단(防護團)소방조(消防組)재향군인회(在鄕軍人會)등에 각백원식 기증하엿슴으로 례천사회에서는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三嘉産業組合 設置運動猛烈

【陜川】 합천군삼가(陜川郡三嘉)면는 가회(佳會)쌍백(雙栢)의중심지대로서 일찌기 면민은 현재 합천산업조합(陜川産業組合)삼가지소(三嘉支所)만으로는 여러가지 불편이만타하야 오래전부터 삼개면민유지는 삼가산업조합(三嘉産業組合)설치를 요망하야오든

特志家宋丙雨翁의 銅像除幕式盛大

十五日、益山王宮普校校庭에서

各界名士의祝賀裏에

【裡里】 익산군왕궁면(益山郡王宮面)송병우옹(宋丙雨翁)(八三)은 왕궁보교(王宮公普校)외 오개공보교에 투백수만원의 거액을희사하야 제이세국민의 육영사업에 일흘하지의노력을 하는바 방비민구제에도 다대한사업을 하야 익산군내(益山郡內)에서는 전무후무한 미거를 하야옴으로 사회각방면으로부터 만흔 찬양을 받은터인데 특히 옹의 장지에감격한 왕궁면민과 근군의 면민은 옹의공덕을 영구히기념하기위하야 옹의 수상(壽像)을 건립하기로 금춘에 결정하고이래 준비를하야오든바 왕궁공보교(王宮公普校)도 신축의일로하얏슴으로 옹의 수상(壽像)을 동교정에 건립하고 십오일오후두시에 동교에서 삼군도시학관(三郡道視學官)길진의삼군수(吉津)등의 렬석하에 각관공서대표자와 군내유지다수가 모혀서 성대한 동상제막식(銅像除幕式)을 동교 신축락성식과 아울러 거행하얏다는데 제막식을 거행하는지음에 일반 유지의 렬렬한 축사에 송옹(宋翁)은 감격에넘치여 눈물흘렷스며 옹이일반 숭배의적인 동상건립까지의 공적을입은 사업을 소개하면이러하다

一、十年前에王宮私立學校(王宮公立普通學校前身)에 一金三千圓也를校舍建築費로서寄附
二、大正十四年春凶時貧民救濟事業으로서 同年度第一期分戶稅七百六十五戶分 一金五百三十二圓也를王宮面에代納
三、昭和三年四月王宮面事務所建築費로 現金五百圓也와同事務所敷地二百坪과井戶工事費 一金八十圓也를寄附
四、同三四年二年間旱害에依하야 困窮한細民層의生活을 援助하야 同四年度第二期分의戶稅八百二十六戶分 金六百七十五圓也를面에代納
五、昭和十年에至하야 同面初等教育事業으로서 王宮公普校學年延長에對하야 校舍增築費로서 現金千圓 同十一年에現金一萬圓也와 同校敷地九百十坪時價五百餘圓을寄附
六、昭和十二年度에 王宮公普校에 又一萬圓也를寄附
七、昭和十二年度 伊東[illegible]公普校에 千餘圓의時價土地를 同校의新築敷地로서提供
八、同年에三笠[illegible]公普校에五千餘圓을寄附
九、昭和五年度에 春浦面公普校新築敷地로서 五百餘坪(時價三百餘圓)을寄附
十、昭和十二年度에 裡里高等女學校에 五百餘圓也를寄附
十一、裡里農林學校創立當時에 數百圓也를提供

전기와 가티 제이세국민육위하야 초등학교와 빈민구제사업에 실로자선이 천여원의 거액을희사한바 그중 왕궁공보교(王宮公普校)는 전연히 송옹(宋翁)의 원조하에서 오늘의 신축락성을보게되여 동교의 재정적기초가확립되엿다하야 옹에대한 일반사회에서는 각방면으로부터 찬양이 만타고한다 (사진은 宋丙雨翁)

忠北更生農家中

食糧不足三千戶

負債額四十一萬餘圓

【淸州】 소화팔년부터 각도당국에서는 갱생지도부락(更生指導部落)을 건설하고 부채정리식량자급자족 수지균형등을 위하야적극노력하고 잇거니와 충북도(忠北道)내의 소화십일년도갱생지도 농가실적을보면 식양부족의 호수와석수 부채액과호수는다음과갓다는데 현재수지불균형으로 차인부족액이 사만시천팔백팔십구원이라하며 매호당십오원삼십오전이라한다 그런데식양부족의 현재호수가 계획실시전호수보다 증가함은 작년의풍수해급도열병의피해가 극심하엿슴이라고한다

食糧不足	戶數	數量	每戶當
	戶	石	升
計劃實施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現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負債	戶數	金額	每戶當
	戶	圓	錢
計劃實施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現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트럭이小兒轢傷

【大田】 지난십사일 오전열한시경에 대전물산주식회사(大田物産株式會社) 트럭을 신양신(申陽信)(二三)이가 운전하여가지고 유천도로 질주하다가 유천면유천리(柳川面柳川里)정만기(鄭滿基)(六)를 치여 중상을 이피엿스므로 즉시 도립 대전의원에 입원치료중인데 이주일간치료를 요하겟다고한다

穀檢數量激增

一千萬叺을突破

【鎭南浦】 마루나 곡물검사소관내에서 조선 삼도의 소화십이년도(十一年十一月一日至十二年十月까지) 곡물검사수량은 일천구백십오만구천삼백칠십칠입 가마니로 전년도에 비하여 이백팔만륙천삼백오십사 가마니가 격증되엿다고한다 그중현미는 작년보다감소되엿고 백미가격증되엿다는바이것을 구별하면 중요한것만 이아래와 갓다고한다

	今年	前年
正租	三六六、六八六叺	三三七、七〇〇叺
玄米	六、〇六六、三四四叺	六、六八〇、〇二〇叺
白米	一、〇六六、三一〇叺	一、三六五、三〇一叺
大豆	三三一、六六八叺	三二六、三六五叺

申吉成氏美擧

【牙山】 충남아산군온양면읍내리(牙山郡溫陽面邑內里)에거주하는 신길성(申吉成)(二二)씨는 이충남공립보통학교(溫陽公普校)증축비로 이백원을희사하고 이백오십원은 국기게양대(國旗揭揚臺)건설비로자진기부하엿스므로 일반은씨의자선에대하야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地方人事

◇尹鍾燮氏(淸州副邑長)赴任人事次本社淸州支局來訪

淸州淸南學校問題

雙方讓步로解決

【淸州】 루보—야소교북장로파선교회(耶蘇敎北長老派宣敎會)에서는청주청남학교(淸州淸南學校)교사처분을 요구하게되여 청주사회에서는 그문제귀결을 주목하고잇스며 일반유지까지 원만해결을 선교회측에 교섭하고잇다 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지난삼십일청주법원에서 재산회로를열게되여 쌍방양보로 원만한 해결을보게되엿다 그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이년전부터 교사는 철거하기로하고 그대신 운동장에 수려배당을 건축하기로하엿든것을 운동에 만흔지장이 엇불가하야 에 건축하기로 하엿다는바 청주사회에서는 이문제해결을 보게되여기뻐함을마지안는다고한다

長篇小說 濁流 【37】

蔡萬植 作
鄭玄雄 畵

「生涯는方眼紙라」(八)

「자네는 대체 어쩔셈인가?」

형보는 수가있다는 제 계획을 이야기하기전에 위선 이러케 따지고든다.

「어쩔셈이구 무엇이구 아무도리두 엇지 머……」

태수는 두팔을 뒤로짚고 퍼근히 다리를 뻗고앉아서 담배만 풍석풍석 피운다.

「그러면 나 하라는대루하게」

「어떠케?」

「지금 백석이까지……」

이러케 말하는데 태수가 눈을 둥그러케뜬다. 형보는 아래재리고 행화를 흘려다보다가

「헤헤 미안하지만 건넌방으로 잠간 가서있게그려나?」

하니까 경대아페서 심심파적으로 눈썹을 다스리고잇든 행화가 세수수건을 집어들고 어려선다.

「나두 세수하러 나갈라든 참이어요. 와? 무슨 수가 생기오?」

「응 단단히 수가 생기네」

「야! 오래간만에 장수사던분에 술한잔 어더묵나부다. 인제 수생기거든 아예 내몫아치 잇지마소 예?」

「아무렴. 내가 이저바릴테루다 이 고주사가잇는데!」

「아모려나 내는 모르겟다 수나 드북하니 장소 들……」

행화는 우수개석거 이런소리를하고 마루로 나간다.

「그래 그세군데니 말이야……」

형보는 소군소군 이야기를 다시 내놋는다.

태수는 벌서 고개를 흔들고

「……세군데서 삼천원씩 한 만원가량만 봅아내게?」

「만원을 가지구 어떠케하게?」

시어친처하다가……

「응, 그놈 만원을가지구, 나하구 둘이서 서울루가거든 자네가 호자가기 점잔하거든랑 저에 행화나 데리구」

「흥!」

「아핫다! 지레 그리지를말구 끗까지 들어바요. 그러케 서울루 가서 자네는 문밖의아무데나 깁숙히 들어안저잇스라문이야, 삼년아니면 다지해야 사년……」

「공금회계해가지구 도망가다가 잽히잔는놈 못보앗네 제-기 상해나 북경가는데루 뛰엇다두 잽혀와서 콩밥을 먹는데 뭣자 서울!」

「그야 저하기나름이지. 조심을 아니하니까 붙잽히지 죽은드끼 틀어안저만 잇스면 십년가두 잉어서요」

려케 만원을가지구 좋은바다에안저서 재밤으게만 납디면 삼사년안에 한 사오만원쯤은 넉넉 잡네」

「허왕한소리!」

「이건 속두 몰으구 어래! 해만 보아요. 그래서 한 사오만원 잽히거들랑 그때는 자네가 자포내 본전 일만삼사천원을 가지구 도루와서 자 돈을 가저왓스니 용서해주시요 한달말이야. 비는장수 목베일수없더라구 그러케 돈을 몰어내노쿠 빌면 징역은 면할테니까. 그러구나서는 그돈 남어지를 가지구 자네하구나하구 다시 장사를하면 어엿하잔허? 어때?」

「글세. 그것두 자네가 친구를 생각하는 맘으루 그러는것이니 고맙기는 고마워이. 그러나 조차 생각해보세마는…」

「자네가 그러케 내속을 얼어주니 말이지 그게 내한테두 여간만 위래한것이 아닐세! 잘못하다가는 나두 콩밥아닌가? 그러치만 자네가 하루 사정이 딱하니까 친구루 안저 그냥 보구잇슬수가 업구해서 그러는것이지. 그러니까 자네두 생각하려니와 내일을 내가 생각해서라두 여간만 조심할배가 아니어든……」

그러나 형보는 태수를 위해서 그러다는것은 생판 입에붓튼 말이요 또 만원을 그러케 들러빼어주대도 지금 이야기한대로 해할 뱃장은아니다.

태수는 할이없이 혼자서 고개만 가루 흔든다. 그는 제히고 아니게히고간에 하루이틀도 아니요 삼사년을 그처럼 당돌하게 처벅하서 숨어지낸다는것은 생각만해도 진저리가 날일이다.

돈을 마음대로 쓰고, 좋아다니면서 질탕히 노는, 그런 올리어는 생활이 아니고는 차라리 죽어한도 못할일이다. 그러니까 그는 일이 탈로나는 마당에 일으러서도, 자살로써 감옥가기를 피하려는 각오를 하고 잇는것이다.

이러한 속은 몰으고 형보는 연신 제계획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아무염려말구 한삼년 그러케 참구잇스면, 그동안 나는 그돈 만원을 가지구 안저서 쇽 또장수를 한단말이야」

「돈장수라니?」

「응 돈장수. 수험 할인 떼어먹는것말이야. 아주 자세한것은 조차 이야기하겟지만, 그